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<small>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</small>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8. 3.12(월) 총 2매(본문 2)	
담당 부서	항공운항과	담당자	•과장 김상수, 사무관 민병우 •☎ (044) 201-4259, 4268
보도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“ 조종사 2명중 1명꼴 수면무호흡증... 정부 피로실태 조사하고도 비공개 ” 등 보도 관련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조종사 피로관리 개선을 위하여 항공사, 조종사협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금년 상반기(6월)내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
 - 항공법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은
 - 조종사의 휴식시간을 확대(현행 8시간 → 10시간) 하고,
 - 시차 4시간 초과지역 비행시, 비행근무시간을 30분 축소하는 기준 신설
 - 예측이 불가능한 비정상상황 발생 시, 현재 2시간까지 연장하던 비행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강화된 승무원 피로관리 내용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예 반영 할 예정입니다.
 - 이를 위하여 용역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재 항공사·조종사협회 등과 협의·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- 아울러, 국토부는 조종사 피로위험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최근 문제가 제기된 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3월중에 2차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- 보도 내용 중 “ 조종사 2명중 1명꼴 수면 무호흡증 ” 관련하여, 전체 조종사 약 5,900명 중 표본 21명(0.35%)을 대상으로 수면다운 검사를 실시하였고, 이는 표본 대상자수가 적어 전체 조종사의 수면 상태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.(용역결과보고서 인용)
- 또한, “ 피로실태 조사하고도 비공개 ” 관련, 1차 용역결과보고서는 항공사 및 조종사협회 등에 既 배부하여 조종사협회 및 항공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으며, 피로관리 개선을 위한 2차 연구용역에 활용 할 계획입니다.
- 국토부는 한국형 피로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 되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종사 등의 피로축적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피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.

< 보도내용 (3.12, 토마토뉴스) >

- ◆ 조종사 2명중 1명꼴 수면무호흡증... 정부 피로실태 조사하고도 비공개
- ◆ 아시아나 · 이스타 비행시간 월 최대 100시간 육박
- ◆ 고무줄 비행시간 · 야간비행에 졸음운전 ‘다반사’
- ◆ 밤샘근무에 휴식도 부족...외국조종사도 기겁할 근무환경
- ◆ 13시간 비행시 사고위험 5.5배...대형사고 반복 우려



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민병우 사무관(☎ 044-201-426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